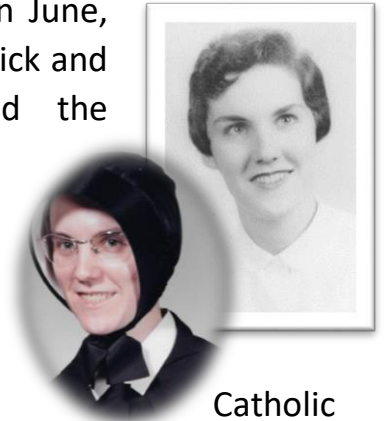




Greetings! My name is Sister Mary Ann Corr and in September, 2018, I am celebrating 63 years as a Sister of Charity of Seton Hill. I was educated by the Sisters of Charity at St. Kieran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 from which I graduated in June, 1955 and with support from my parents, Patrick and Teresa and my sister, Patricia, entered the Congregation in September of the same year.

Beginning with daily Eucharist in high school and cherishing Mother Seton's final challenge to be "...daughters of the Church", I have never wavered in my love of and support for the Catholic Church.



Catholic

My ministry has been a great blessing to me and I hope, to the Church as well. My service included 24 years as an educator in Catholic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nd as an adjunct professor at a Catholic University, teaching first grade for 15 years, second grade for 1, junior high for 5 and high school for 3 years. Then, I moved to Diocesan ministry, with 6 years as an Elementary Education Consultant, 11 years as a Superintendent of



Diocesan Schools, 10 years as a Director of Christian Formation and 2½ years as a Director of the Institute for Ministry. I taught in dioceses of Altoona-Johnstown, Pittsburgh, Tucson and Phoenix and worked at diocesan-level ministries for 30

years, 6 years in Greensburg, 21 ½ years in Steubenville and 2 ½ in Pittsburgh.

After my diocesan ministry, I worked one year in a parish as a Pastoral Associate and currently enjoy serving as a Spiritual Director for a small number of persons, leading a group of people in the Spiritual Exercises of St. Ignatius Loyola, assisting with memorial and committal services at one of the local cemeteries and serving as a substitute teacher when needed.

I am very grateful to God for being a member of the Sisters of Charity of Seton Hill, having a wonderful family and very good friends, receiving an outstanding education and continued opportunities for ministry after 54 years of active full-time service to the Catholic Church.





안녕하세요! 메리 앤 코어 수녀(Sister Mary Ann Corr)입니다. 2018년 9월이면 사랑의 수녀로서 수도생활 63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저는 세인트 키에란 학교와 엘리사벳 씨튼 고등 학교(St. Kieran School and Elizabeth Seton High School)를 다니며 우리 수녀님들에게서 배웠어요. 1955년 6월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그 해 9월에 부모님과 여동생 패트리샤(Patricia)의 지지를 받으며 수도회에 입회 했지요.



고등학교 때 매일 미사를 드리기 시작하고 ‘교회의 딸이 되십시오’라는 마더 씨튼의 마지막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가톨릭 교회에 대한 저의 사랑과 지지는 단 한번도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사도직은 큰 축복이었어요. 더불어 교회에도 또한 축복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24년 동안 가르쳤고 가톨릭 대학에서 부교수를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을 15년, 2학년을 1년 동안 가르쳤고 중학교에서 5년, 고등학교에서 3년동안 가르쳤어요. 그리고 나서 교구로 옮겨 6년 동안 초등 교육 자문을 했고, 교구 학교의 교육감을 11년 동안 지냈으며 크리스찬 양성 담당으로 10년, 사도직 연구소 담당자로 2년 반을 일했습니다. 또한 알투나-존스타운, 피츠버그, 투산, 피닉스 교구에서 가르쳤고 30년 동안 교구 차원의 사도직에서, 6년은 그린스버그에서, 21년 6개월은 스투벤빌에서, 2년 6개월은 피츠버그에서 일했어요.

교구 사도직을 하고 난 후 1년은 사목 협조자로 본당에서 일했으며 현재는 소수의 인원을 위한 영적 지도자로 봉사하며 성 이냐시오 영신수련을 지도하고 있고 지역 묘지에서 추모식과 장례식을 도와주며 필요한 때 임시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랑의 씨튼 수녀가 되어 훌륭한 가족과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우수한 교육을 받아 54년동안 가톨릭 교회에 왕성하게 봉사하게 하시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도직의 기회를

주신
하느님께
감사
드립니다.

